(가), (다)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(가)의 ‘구월’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.

② (다)의 ‘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’은 ‘당신’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.

③ (가)의 ‘어젯밤’은 화자가, (다)의 ‘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’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.

④ (가)의 ‘오늘밤’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, (다)의 ‘실비 오는 무더운 밤’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.

⑤ (가)의 ‘인기척 끊’긴 ‘한낮’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, (다)의 ‘아직 샐 때가’ 먼 ‘이 남은 밤’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.